



종계·부화농가 대상 제10기 전문육계 CEO 과정 교육



본 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4~16일 2박 3일 간 제주도에서 종계·부화농가 대상으로 제10기 전문육계 CEO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종계부화농가의 합리적인 세무회계방법(진일회 계법인 임기완 대표(공인회계사·세무사)), 육종트렌드에 따른 종계사양관리((주)체리부로 중앙연구소 김종택 소장), 종계질병진단 및 관리방안(우성 양행 전용휘 수의사)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종계부화산업 발전방안(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 닭고기자조금사업 활성화방안(닭고기자

조금관리위원회 심순택 위원장)에 대해 주제 발표 후 본회 종계부화위원회 연진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 본회 이홍재 부회장,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심순택 위원장,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 (주)고려비엔피 한 장혁 전무가 종계부화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로 종계부화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위기를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강연요점



임 기 완 대표
진일회계법인



김 종 택 소장
(주)체리부로 중앙연구소



전 용 휘 수의사
우성양행

■ 종계부화농가의 합리적인 세무회계방법

- 세무 리스크 관리
-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세무 · 회계
- 세제지원 내용 및 영세율 적용 축산 기자재와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축산 기자재

■ 육종트렌드에 따른 종계사양 관리

- 육종개량에 따른 육용종계 사양관리
- 육종개량에 따른 종계 점등 프로그램
- 육종개량에 종계 폐사원인과 대책

■ 종계질병진단 및 관리방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병진단 및 관리방안
- 백신프로그램, 혈청검사
- 차단 방역 요령

주제발표1

종계부화산업 발전방안

육계농가, 종계부화농가들이 처한 상황은 닦 수직계열화업체 위주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뿌리내리면서 자주적 사육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육계농가들은 계열주체가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해 주지 않을 경우 닦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종계부화업체는 계열주체들이 종계를 공급해 주지 않거나 생산된 종란과 병아리를 구매해 주지 않을 경우 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종속관계는 계열주체와 사육농가 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종계부화업체의 경우 여기서 한발 더나가 계열주체들이 종계사육과 부화업을 직영하면서 기존 종계업자와 부화업자들의 설자리를 빼앗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한 육계사육농가와 종계부화업체는 계열주체와 대립해 왔으나 수직계열화사업이 도입 된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재 민 국장
농축유통신문



주제발표2

닭고기자조금사업 활성화방안



심 순 택 위원장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이란 특정 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출금액은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이며 수납대행은 전국도계장에서 진행합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업 추진 방향은 소비홍보로 농가의 자구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자의 조직화와 교육으로 전문성을 배가시키며 정책형성에 참여하여 산업의 장기 발전을 주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닭고기자조금사업은 양계산업의 마지막 희망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토론회



이 흥 재 부회장
본회

농안법에 수급조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가축사육업과 종축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급조절을 위한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삽입·보안한다면 계열회사에서 직영 중계장을 함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축산법을 개정하여 종축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수급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 재 민 국장
농축유통신문

한우와 양돈을 보면 도축장에서 경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경매비용이 들긴 하지만 거래를 성사시킬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닭고기 시장은 이와 반대로 경매는 이루어 지지 않고 계열회사와 직접거래가 이루어져 경매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시장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농협에서 역할을 좀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험법, 방송법 등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축산계열화법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 순 택 위원장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수급에 관여하는 것은 조금 외람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살려야하는 사업을 해야하는데 죽여야 살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지금도 병아리 랜더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닭고기 소비량을 연간 1인당 15kg 정도로 높힐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잉생산된 것을 소비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여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방안으로 초첨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육계CEO과정 교

2015년 10월 14일(수) ~ 10월 16일(금) ■ 장 소 : 제주아모렉

■ 주 관 : 대한육계협회 ■ 참석자 : 30명



▲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현장 방문(검학)

◀ 참석한 교육생 전원에게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었다(오세을 회장(좌)과 연진희 위원장(우))

저는 유통에 대한 부분은 비전문가이지만 30년간 양계업을 밀접하게 보고 느낀바에 대해 대해 말씀드리고 합니다. 현재 계열회사만이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분야에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계열주체는 수입을 올리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수익이 상승한다면 사육비도 동일하게 인상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열주체가 할 수 있는 테두리와 할 수 없는 테두리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원종계와 종계를 동시에 보유하고 사육하는 것은 질병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한 장 혁 전무
(주)고려비엔피

정부에서 가격을 가지고 적극 나서는 것은 가격담합 등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이 되어 있기에 국가소송이 제기되면 국가적 배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려 합니다. 업계에서 일괄적인 의견도출시 정부에서도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시장 자체가 회전율이 짧은 특성으로 농가가 자율적으로 수급조절한다면 정부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등 급식물량을 8% 늘리면 수급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고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냉장과 냉동을 표기하는 것을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대승적인 합의점 도출을 통한 자체적인 수급조절사업 시행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 영 민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연진회 위원장(작장)
본회 중계부화위원

금일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지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업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급조절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농안법을 활용한 수급조절의 강제명령, 보험법과 방송법 등 타부처의 법을 벤치마킹하여 농가의 사육주권을 유지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삼계(일명 백세미)의 육계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과 삼계의 씨알을 생산하는 가축의 관리강화, 축산농정의 가족농 지원방안마련의 정부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소비 증진을 위한 자조금사업의 활성화 방안, 계열사의 직영농장의 가속화 대처방안, 계열업체와의 상생방안도 우리가 깊은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작금의 종계부화산업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합니다. 금일 제시된 다양한 의견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종계부화위원회를 통해 자구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최인환 기자, enani85@naver.com)

양계인의 필독서! **닭질병가이드** 절찬 판매중!!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국내 양계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닭 질병가이드'를 출간하였습니다.

'닭질병가이드'는 기존의 나열식 틀에 박힌 질병책자들과 차별화를 두어 호흡기, 소화기, 면역기 등의 각종 장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찾아가기 형식을 이용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습니다.

농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닭 질병 상식의 총 집합체인 '닭질병가이드'는 정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지난해 이미 본회 지부·도지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농가 및 관련업계로부터의 주문이 쇄도하면서 추가로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닭질병가이드'가 필요한 농가나 관련업계에서는 지금 곧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발송비 포함) : 20,000원/권, 15,000원/권(본회회원 및 10권 이상 주문시)

입금계좌 : 097-01-000953(대한양계협회, 농협)

연락처 : (사)대한양계협회 홍보국 최인환 기자(02-588-7651)

